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쉬운 일에만 말이 길어진다, 사소함의 법칙(Law of Triviality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4215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회의에서 수억 원짜리 계약은 몇 분 만에 박수와 함께 통과됐는데, 사무실 탕비실에 어떤 커피를 둘지 정하는 데는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간 경험이 있으신가요? 정작 중요한 결정은 서둘러 넘기고 사소한 일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은 어느 조직에서나 낯설지 않습니다.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.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(Cyril Northcote Parkinson)이 1957년에 낸 책에서 소개한 사소함의 법칙(Law of Triviality)입니다. 한 안건에 쓰는 시간은 그 안건에 걸린 금액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. 본 자료에서는 이 법칙이 나온 풍자적인 회의 장면부터 사람들이 작은 일에 말이 많아지는 까닭,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얻은 별명, 그리고 회의에서 이 함정을 피하는 요령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. 큰 안건은 스치고 작은 안건에 머무는 회의 원자로와 자전거 보관소 이야기 파킨슨은 『파킨슨의 법칙(Parkinson's Law and Other Studies in Administration)』의 한 장에서 가상의 재무위원회를 그려 보입니다.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원자로 건설에 드는 1천만 달러짜리 계약이고, 둘째는 사무직 직